

임종진 사진작가

11. 29 / 5주/
사는 거이 다 똑같디요!

오랜 분단체제를 넘어 극적으로 현실화된 남북화해와 통일의 시대에 맞춰 남북 간 정서적 교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분단체제의 반쪽 시민으로서 우리는 나머지 반쪽 시민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특히 고착화된 분단현실로 인한 남북의 정서적 차이는 향후 평화공존의 시기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실제적 문제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반도에 촘촘하게 스며든 “분단의식”을 해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로에 대한 ‘얇’의 기반을 모색하는 평화공존의 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일체적 감성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껏 하나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북한의 실체는 과연 진짜 ‘실체’인가. 이데올로기와 경제수위의 질적 가치를 통한 이성적 관점을 해체하고 정서와 감정을 기반으로 한 관점으로 미력하나마 대안을 나누고자 한다.



임종진 사진작가

(주)공간아이 대표. 6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얼굴을 가장 생생하게 담아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일하게 기억한 ‘남녘사진가’로 알려져 있으며 한겨레신문 사진기자, 한국사진치료학회 이사를 지내고 현재 다큐멘터리 사진가이자 1급 사진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트라우마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사진치유 전문위원으로서 5.18 고문피해자, 7·80년대 조작간첩 고문피해자, 발달장애인, 가정폭력피해 청소년 등 시민들을 위한 사진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 북한, 캄보디아 등을 포함해 NGO 활동가로 일했던 수많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진 이미지’ 활용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애란 원장

12. 6 / 1주/
맛있는 통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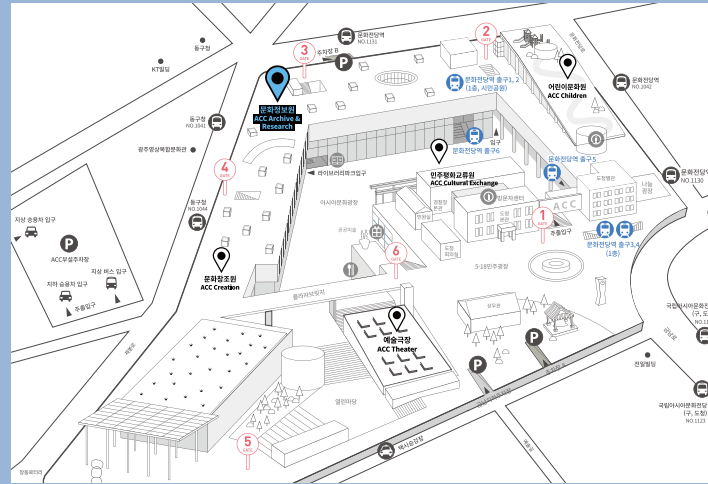
분단 7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체제로 말미암아 남북한간의 문화적 교류와 인적교류가 완전히 제한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한은 각각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더 문화적, 언어적, 인적 단절의 시대를 겪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왔으며, 현재는 어떤 음식을 먹고 있을까? 북한의 지역별 음식을 통해 북한의 자연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통일시대에 북한주민들을 더 잘 이해하고 통일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애란 원장

탈북 여성 최초로 이화여대 식품영양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북한 전통문화유산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이북 음식을 소개하고 음식을 매개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상을 알리고 있으며 한식진흥원과 북한 음식 아카이브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사)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사)자유통일연구원 원장과 경인여자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며 북한의 전통음식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북한식객(2012, 웅진리빙하우스), 사람 참 안 죽더라 (2013, 모리슨), 숨겨진 맛 북한의전통음식(한식재단 연구과제 수행) 등이 있다.

오시는 길



-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지 하 철** 1호선 문화전당역 하차 (5, 6번 출구로 나오시면 편리합니다.)
- 버 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는 문화전당역 하차
지선 : 수완12, 1187, 518, 석곡87, 송정98, 풍암61, 첨단95, 금남55, 419, 금남57
급행 : 첨단09, 순환이, 진월07, 풍암06
간선 : 지원45, 금호36, 봉선37, 봉선27, 일곡28, 지원15, 운림35, 진월17, 문흥39
공항 : 1000
- 주차안내** 주차장A : 전일빌딩 옆길 금남로 지하상가 주차장 방면
주차장B : 동구청 앞 교차로 이연안과 맞은 편
부설주차장 : 문화창조원 건너편 동명동 방향

- 참가안내**
 - 참가비 : 무료
 - 참가문의 및 신청 : 1899-5566, www.acc.go.kr
 - ※ 당일 잔여좌석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
- 유의사항**
 - 생활 속 환경보호실천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여 종이컵을 제공하지 않으니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상지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어 별도의 주차 감면 혜택이 없으니 대중교통이용을 추천 드립니다.
 - 목요일의 문화시계 총 5회의 강좌 중 3회 이상 수강하신 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기타문의**
 - 아시아문화원 교육콘텐츠개발팀
 - E-mail. arame1004@acc-kr Tel. 062-601-4742

문화예술로 만나는
북한 이야기

어서와~ 북한은 처음이지?

일 시 2018.10.18. - 12.6. (격주 목요일, 총 5회), 오후 3~5시
장 소 문화정보원 극장3, 대강의실, 강의실1
참가비 무료
참가문의 및 신청 1899-5566 www.acc.go.kr



어서와~ 북한은 처음이지?

문화예술로 만나는 북한 이야기

기획의도

분단 70여년의 세월 동안 남과 북은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세대가 거듭될수록 남과 북의 심리적 거리는 더욱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의 문화예술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고 10여년 만에 다시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연일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재개 등 현재 우리의 상황은 북한을 더욱 가깝게 두고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촉발시키고 있다.

하반기 목요일의 문화시계에서는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예술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담론의 생성을 통해 북한의 현재를 읽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전체일정

일정	프로그램명	진행	장소
10. 18	제3의 길 - <북녘의 노래>의 재현 전략	신은실 영화평론가	극장3
11. 1	북한 사람들은 어떤 영화를 보고 있는가?	한상언 박사	대강의실
11. 15	남북 교류의 또 하나의 국경: 북·중 국경(압록강과 두만강)을 가다	강주원 박사	대강의실
11. 29	사는 거이 다 똑같디요!	임종진 사진작가	강의실1
12. 6	맛있는 통일 이야기	이애란 원장	대강의실

신은실

영화평론가

10. 18 /3주/

제3의 길 - <북녘에서 온 노래>의 재현 전략

지금까지 북한을 소재로 한 대다수 다큐멘터리는 해외에서 제작되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서구 제작자들의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과 북의 경계를 오고가는 재일동포 등 해외 체류 제작자의 작품들도 이따금 공개되었다. 이를 거칠게 일컫자면, “극장국가 북한”을 “관람”하는 “안과 밖”의 시선들이라 할 만하다. ‘극장국가’는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가 19세기 발리의 정치체제를 연구한 『극장국가 느가라』(1980년 첫 출간)에서 먼저 쓴 뒤, 『극장국가 북한-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2013년 한국 출간)에서 권현익 등이 북한 정치 체제를 분석할 목적으로 채용하며 널리 알려진 “이론적” 개념이다.

한편, “안과 밖”이라는 틀은, ‘경계’라는 중간 지대를 포함하더라도, ‘직시’를 어렵게 하는 냉전적 사고의 이분법을 떨치지 못했으리라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서구 영화와 영화인들이 베트남전을 제대로 재현할 수 없음을 설파했던 <베트남에서 멀리 떨어져>(아녜스 바르다, 요리스 이벤스, 장 뢰 고다르, 크리스 마커 등 공동 연출, 1967)가 수행한 전략을 이어받아 존 지안비토, 존 조스트 등과 협업한 <파 프롬 아프가니스탄>(2012)에서, ‘전장’인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의 역할을 진중히 해부했던 유순미 감독은, <북녘에서 온 노래>에서도 기존 북한 소재 다큐멘터리와는 다른 전략을 구사한다.

이 강의에서는 분단을 넘어서는 영화적 상상력을 모색하는 <북녘에서 온 노래>의 새로운 재현 전략을 돌아본다.

목요일의 문화시계 X ACC 필름앤비디오 아카이브

북녘에서 온 노래 (ACC 필름앤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 : 유순미)

<북녘에서 온 노래>는 지금까지 터무니없는 선전이나 비웃는 풍자 등 왜곡된 렌즈를 통해 비춰져 왔던, 수수께끼 나라 ‘북한’을 다른 시각으로 보여준다. 북한을 세 차례 방문했던 감독이 찍은 영상과 함께 북한의 노래, 집단공연, 대중영화, 미국 기록영상 등을 혼용한 이 작품은 북한 사람들의 심리와 일반적인 상상체계, 그리고 북한을 불확실한 미래로서 몰아가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북한이라는 나라를 면밀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자유, 사랑, 애국이라는 보편적 정 의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신은실 영화평론가

서울환경영화제,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서울아트시네마, 시네마디지털서울영화제, EBS국제다큐영화제 등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공저로 『필름 가젤, 찬란한 절망』(현실문화/국립현대미술관), 『한국영화 100선』(한국영상자료원), 『21세기의 독립영화』(한국독립영화협회), 『부산독립영화작가론』(부산독립영화협회), 『여리지 스킨리 모프스키』(전주국제영화제) 등이 있다. 현재 인디다큐페스티벌 집행위원, DMZ국제다큐영화제 프로그램 어드바이저로 활동 중이다.

한상언

박사

11. 1 /1주/

북한 사람들은 어떤 영화를 보고 있는가?

북한영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데올로기 대립과 분단으로 이질적으로만 느껴지는 북한.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 북한 사람들의 살아 온 이야기를 간접경험 해 본다. 이번 강의는 북한영화와 남한영화의 공통점에서부터 차이점까지를 파헤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서부터 북한영화에 대해 진정으로 알아야 할 지식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 강의를 통해 지난 70년 동안 북한사람들은 어떤 영화를 보아 왔는지 알아 봄으로써 북한의 지난 역사와 북한사람들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전형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상언 박사

영화사연구자, 영화학 박사, 한상언영화연구소 대표. 일제강점기 영화 자료를 수집하던 중 영화인들이 해방 이후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이 월북과 관련한 것을 알게 되어 월북영화인의 자료와 북한 영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 왔으며 최근 서울도서관에서 열린 <평양책방: 책으로 만나는 월북예술인>을 기획하고 소장작품들을 공개한 바 있다. 저서로는 <해방공간의 영화·영화인>(2013), <조선영화의 탄생>(2018), <평양책방>(2018)이 있으며 공저로 <해방과 전쟁 사이의 한국영화>(2017), <할리우드 프리즘>(2017), <동아시아 지식인의 대화>(2018) 등이 있다.

강주원

박사

11. 15 /3주/

남북 교류의 또 하나의 국경: 북·중 국경(압록강과 두만강)을 가다

남북교류는 휴전선 넘나들기만 존재하였는가?

아니다. 남북교류와 관련되어 또 하나의 국경이 지난 20년 넘게 존재하고 있다. 압록강의 물결은 흐르고 흐르다 황해에서 대동강과 한강에서 흘러나온 물과 섞인다. 유구한 세월 동안 그런 흐름을 멈춘 적이 없다. 사람들의 삶 또한 그럴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압록강을 보면 남북이 더불어 살아오며 일군 교류와 평화의 강줄기가 보인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희망적 사고’와 달리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이번 강의에서는 남북교류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을 연구자가 지난 20여년 간 기록하고 있는 사진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하려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북한 사회에 관심이 있는 학생, 일반, 시민활동가에게 다양한 문제의식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주원 박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 인류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2012)를 받았다. 2000년부터 주 연구대상과 지역은 북한사람·북한화교·조선족·한국사람·탈북자이고 중국 단둥과 북·중 국경지역이다. 국경에 기대어 사는 이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통일에 대한 고민을 업으로 하는 인류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꿈을 키우고 있다. 저서로는 『웰컴 투 코리아』(공저),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룬다』(2014년 한국연구재단 우수도서 선정),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등이 있다.